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19년 11월 22일(금)
(음력 10월 26일)

Пятница

22 ноября 2019г.

№ 45(116862)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11월 24 일에 러시아에서 어머니의 날을 기념한다. 사할린 동포어르신들의 모습.

(이예식 기자 촬영)

친애하는 여성 여러분!

러시아에서 가장 찬란하고 훌륭한 명절 중 하나인 '어머니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머니는 자식에게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보살피며, 양육하는 데 자신의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가장 훌륭한 선생님은 어머니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되는 것은 책임이 크고 수고가 가볍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짐을 덜어주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차원에서 이를 위한 많은 일들이 시행되고 있으며 기존의 혜택을 확대하고 새로운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 4월 1일부터는 출산 후 퇴원하는 산모들에게 신생아를 위한 소비용품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유아원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1년6개월부터 3세까지의 유아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 출산 지원금 프로그램의 시행 기간도 연장되었습니다. 자녀를 둔 가정을 지원할 목적으로 중요한 해결책들도 채택되었습니다. 사할린과 쿠릴의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절약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반대로 지원 조치들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지속적으로 성취해 가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사랑과 강건함과 번영과 자녀들이 다 잘 되는 기쁨을 기원합니다

사할린 주지사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주 정부조직 새로 개편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는 사할린 주민들의 삶의 질적 향상과 수명 연장에서부터 교육의 기회 확대, 도로 품질 향상, 의료개혁, 교통의 접근성 확대, 사할린주 전역의 가스화 사업, 도시 환경과 생태환경보호에 이르기까지 과제를 설정하고 새로운 수준으로 나아갈 사업 방면을 총 집합해 주 정부 사업 관할 아래 두게 된다. 현재 사할린주 정부 조직 개편을 마무리 중인 가운데 개편된 조직의 정규 직원 수는 변동은 없다. 주 정부나 지방 정부는 자체 과업 성취도에 따라 임금이 설정되게 된다. 안톤 자이체브 부주지사는 사할린 지역 투자 유치를 담당, 세르게이 나우모브 부총재는 보건 분야에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행정부의 개편된 조직은 사할린 주지사 행정부와 사할린주 정부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주지사 행정부는 국가행정부,내무국,법무국, 정보정책국, 민원사무국, 관리 및 세무 감독으로 구성되었다. 행정실장으로는 제1부주지사가 임명되어 지방 지역기관의 발전과 사할린 및 쿠릴 주민들과 정부 간 상호소통 및 감독을 담당한다. 또한 업무의 확대에 인사정책에 있어 인사정책국은 인적 자원 선발에서 관리를 하는 주 행정부로 개편된다.

사할린주 정부 조직은 기존의 조직과 새 조직으로 개편, 조달 계약체계 규제는 없애고 경제개발부가 무역을 담당한다. 국가 조달에 대한 연방법 규제 감독은 재정부가 담당한다.

환경부는 2개 부서가 통합되어 자연자원부와 지역환경보호, 산림 및 수렵경제부가 통합된다. 자연자원부가 감독했던 석유가스 기획은 앞으로 주 경제개발부가 운영하게 된다.

전력 및 가스화 개발청은 동력부로 개편되어 사할린에서 시작한 동력 분야의 대규모 기획을 담당한다. 디지털 개발 및 통신부는 디지털 기술 개발부로 명칭이 바뀐다. 디지털 기술 개발부는 사할린주 정부 조직의 업무를 최적화하여 효율적 관리로 정부 내각과 지역 간 긴밀한 상호작용의 업무를 담당한다. 주 농산임경제부는 지역 식품과 무역부를 통합하고 여기에 수산청과 동물 및 축산기관이 통합 소속된다. 지난 19일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사할린주두마 의원들 회의에 참석해 주 행정부 조직 개편을 발표했다. 다수의 부서 담당자들의 인사 이동은 크지 않으나 새로운 인사도 편입되었다. 앞으로 개편된 정부 조직은 사할린이 당면한 과제들을 실현시켜야 하는 책임을 짊어지게 되었다. (본사 기자)

단신

사할린 대표 기능인팀 전국'어빌림픽' 결승전에 진출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모스크바에서 제 5회 '어빌림픽' 전국 장애인 기능올림픽대회 결승전이 열린 가운데 사할린의 기능인팀이 출전했다. 전국 '어빌림픽' 결승전에는 전국 84개 지역에서 약 500명의 전문가와 1800명 이상의 경쟁자들이 참가한다.

올해 사할린주를 60명이 대표하는데 이 중 경쟁자 21명, 그외 전문인을 비롯해 자격증을 가진 심리학자, 의료계 직원, 수화 통역사, 인솔자 등이다. 사할린의 대표 기능인들은 데이터 자료 관리, '비즈 아트', '수공예', '미술', '요리사', '재단사', '뜨개질', '도예', '문서 확보 관리 및 보관' 비롯 총 18개 주요 기능에 출전한다.

2020년 사할린과 홋카이도, 특별한 교류 예정

2020년 지역 간 우호 교류의 해를 맞아 지난 19일(화)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제14차 사할린주와 홋카이도 대표자 회담이 진행되었다.

"대화 구축을 위한 회담장에서의 만남은 지역 간 차원에서 협력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지금 러시아와 일본이 2020년을 국제 교류의 해로 선포한 가운데 이런 교류는 매우 상징적이다."라고 사할린주 경제개발부 알렉세이 부투하노브 차관이 언급했다.

회담에는 홋카이도청 고다마 도시히로 도내 기업 관리인, '사할린-일본'협회 러시아 사무처 회장, '일본-러시아'협회 사무처 오쿠보 회장도 인사말을 전했다. 이날 양국 전문가, 사회활동가 등이 교육, 예술, 외국어 교육에 대한 다양한 방면에 관해서도 발표했다.

사할린 씨름 선수, '2019 천하장사 씨름대회'에 초청

지난11월18일 한국 충청남도 예산군 <윤봉길 체육관>에서 대한씨름협회가 주최하고 예산군 체육회와 예산군 씨름협회가 주관하는'2019 천하장사 씨름대축제'가 열렸다. 대회는 모래관 최강자를 가리는 이번 대회는 24일까지 7일간 남자부 태백급(80kg 이하), 금강급(90kg 이하), 한라급(105kg 이하), 체급 구분 없이 출전하는 천하장사전이 차례로 열린다고 전해졌다.

올해는 대축제에 러시아(야쿠티아, 사할린), 스페인, 몽골, 중국(연길, 심양), 뉴질랜드, 터키,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브라질 세계 총 9개국 11팀 약 60명이 참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씨름협회(회장 박팔용)에서 이번에 사할린에서 주 씨름협회 춘알렉세이 회장을 비롯해 총 6명(선수 4명 포함)을 초청했다. 아직 씨름의 경험이 부족한 사할린 선수에게 이와 같은 대축제는 좋은 경험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새고려신문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0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을 계속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6개월 구독료는 570루블리 90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본사 편집부)

2020년 상반기 신문주문 시작



《사할린에서 댄스 문화를 발전시킵니다》

엘렉트로, 테크닉, 힙합 등을 선보이는 김일남 청년
성공의 순간보다 도전, 과정 자체를 더 즐긴다

김일남 청년을 신문사에서 오래전부터 취재하려고 했다. 작년 가을 TNT채널에 사할린 출신 김일남 (러시아명 예브게니)군이 <TNT에서의 댄스>쇼 경쟁프로그램에 출전한 사실에 대해 사할린 언론 매체들이 전달하면서 사할린에 널리 알려지는 화제가 되었다. 본지에도 이에 관한 소식이 러시아어로도 보도되었다. 서로 약속을 잡기가 쉽지 않았으나 드디어 <Flow motion>댄스 스튜디오 김일남 (26세) 대표와 만나 신문사에서 얘기를 나눌 수 있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출생인 김일남은 제9동양어문학교 11학년때 댄스에 관심을 가졌다. 친구들과 함께 비디오 영상을 보면서 힙합, 엘렉트로 등 춤을 익혔다고 한다. 하바롭스크 극동 철도대학교 금융 및 신용학과에 입학해서 처음으로 하바롭스크 어느 거리 댄스대회에 참가해 우승을 했다. 지속적인 연습의 결과다. 극동지역 댄스인들 중에서 인정을 받고 극동의 한 우수 댄스팀에 초대되기도 했다. 거기에서 연습도 하고, 나중에는 댄스 강사도 하고, 춤 연출까지도 했다. 공연도 많이 하고 넓은 극동지역의 여러 경연에도 많이 참가했다. 대학에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남이를 대학 대표 댄스맨으로 하였다. 학비에서도 50%가 면제되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댄스를 가르치게 되었다. 그는 <대학생 봄>전국대회 댄스부문에서 우수와 최

우수 상으로 대학에 보답을 했다.

2015년 대학을 졸업하고 <TNT에서의 댄스>쇼 경쟁프로그램의 시즌2 극동지역 예선을 통과해 모스크바에 가서 본선 3단계까지 출전했다. 그땐 그와 관련된 촬영 장면은 방송으로 내보내지 않아서 이에 대해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원래 방송은 40% 출연자만 내보낸다고 한다. 이렇게 그는 하바롭스크 삶의 단계를 마무리하고 사할린에 돌아왔다.

그가 사할린에 되돌아온 큰 이유 중 하나는 엄마와 함께 농장을 잘 키워보겠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했다. 스스로 이걸 결심했다고 필자에게 전했다. 미혼모로 아들을 고생하며 키운 엄마를 생각해서 결정한 듯하다. 2010년에 김일남의 어머니는부모의 추천으로 지인들에게서 10헥타르가 안 되는 토지, 그리고 일부 토지는 임대하여 농산물 사업을 시작했다. 활동 경력은 교사 자격증, 회계사뿐이었고 농사를 시작할 땐 30대 중반이었는데 2014년에 우수 농업 기업인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주정부의 소기업, 농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여러 농업장비, 채소 저장소, 화물차 등등 구입할 수 있었다. 주로 감자, 토마토, 배추, 오이 등의 농산물을 재배하는 37헥타르의 <클로버>농장이다. 채소 수확도 괜찮았는데 수입은 크지 않았다. 그 원인은 어머니가 싸게 도매시장 상인들에게 농산물을 공급하는 데



있었다. 그래서 집에 돌아온 일남이는 엄마와 동업하며 우선 소매시장에 진출해야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농업을 하면서 그는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한다. 직접 트랙터와 화물차도 운전하고, 배달에 시장에서 채소를 판매하기도 했다. 그는 채소 자랑도 했다. 농장이 노워트로이츠크예촌에 있는데 특히 토마토가 맛있게 잘 자란다고 한다. 한국 씨를 심은 배추도 농사도 잘 된다고 했다. 그는 2년 이상 거의 농업에만 몰두했다. 조금씩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어 최근에는 댄스와 관련한 활동이 우선이다.

거의 2년 전에 그는 친구 이 왜체슬라브(동양김나지아의 한국어 교사)와 함께 <Flow motion> 댄스스튜디오를 차렸다.

현재 여기에서는 공동대표를 포함해 12명의 강사들이 현대 댄스 10개 부문(엘렉트로, 팝핀

(파핑), 힙합, 재즈펄크, k-pop 등)을 가르치고 있다고 한다.

김일남 대표에 따르면 청소년 중에는 k-팝이 인기가 있는데 현재 스튜디오 강사 한 분이 인기 있는 k-팝 그룹들의 안무를 그대로 수강생들에게 익히고 있다고 했다.

유료반 외에 현대 댄스를 오랫동안 열심히 즐기는 친구들(6명 정도)과 같이 모여 무료로 연습하기도 한다. 이들은 여러 축제, 기념행사 등에 자주 초대되어 멋진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대규모 행사에는 스튜디오에서 보다 더 많은 출연자들을 준비시키고 자기 만의 작품을 연출한다. 이번 <아시아 아이들> 동계스포츠대회 개막 및 폐막식에도 50명이 참가해 출연했다.

"사람들이 제가 중앙 티비방송에서 출연했다고 반기는 것보다 제가 현대 댄스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댄스 연출도 하고, 스튜디오를 이끌고 있다는 데 더 많이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위에서 여러 프로젝트에 초대되기도 하고 그저 댄스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행사 취지에 맞는 재미있는 퍼포먼스를연출합니다.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좋아요."라고 김일남 대표가 말했다.

김일남 이름이 사할린에서 많이 알려지고 큰 사랑을 받게 된 계기는 그가 2018년 <TNT에서의 댄스>쇼 경쟁프로에 제 도전한 방송 이후다.

"제가 동업자, 동료, 우리 팀

과 함께 사할린에서 댄스문화를 증진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그는 말하였다. 지속적인 댄스 연습은 물론, 중국, 한국 등지에서 댄스훈련 캠프, 축제 참가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김일남 대표는 크게 고민에 빠질 때도 있다고 한다. 특히 최근 반년 이상이 그렇다.

그는 전 러시아 여러 댄스경연에 참가해 최우수상을 수상한 적도 있지만 사할린의 좁은 댄스 세계에서는 크게 성장하거나 성공할 수 없고 제한이 꽤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댄스계의 장인이 되려면 아무래도 모스크바와 같은 대도시에서 새 프로젝트로 출발하는 게 맞는데 한편으로는 새로운 곳에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부담도 있다. 다른 편으로는 1년 반이 된 댄스 스튜디오에 대한 책임감도 크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들이 날개를 원하는 대로 펼치기를 바라고 있다고 한다.

댄스 외에도 배낭여행, 스노우보드 등을 즐기는 김일남의 좌우명은 '느끼는 대로 움직여!'라고 한다. 이 길잡이에서 고민과 선택에 책임져야 할 사람은 오직 자신이다.

필자는 김일남 청년의 말하는 어투나 진지한 표현, 의외로 속 깊은 생각이 마음에 들었다.

거침없이 꿈을 꾸고, 이트려고 노력하고, 맑고 밝은 생각을 지닌 청년을 요즘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기도 하다.

(배순신 기자)

이모저모

현금 인출기에 잊혀진 2만 5천 루블, 사할린 주민에게로 반환되다

지난 목요일, 유즈노사할린스크 러시아 내무부 콜센터에 한 현지 주민 여성의 전화가 걸려왔다. 그녀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쇼핑 센터 중 한 곳에서 현금 인출기를 보니 지금 창구에 거액의 현금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쇼핑 센터 방문자 중 한 사람이 지금된 현금을 잊어리고 간 것을 알아차리고, 주변을 살폈으나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 돈을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 있을 거라 염려한 그녀는 일단 현금을 꺼내 보관하고 즉각 구역 경찰에 이를 알렸다.

경찰들은 이 여성의 진술을 접수하고 몇 시간 후 현금 자동 인출기에서 지급된 돈을 잊은 남성의 신원을 확인했다. 이 여성은 집으로 돌아온 후 이 남성이 집을 방문하도록 하여 2만 5천 루블리의 현금을 돌려주었다. 이때 남성은

"이 여성이 내 현금을 찾아주어서 무척 기쁘다. 그녀는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며 내게 전액을 돌려주었다. 잊은 돈을 찾아주어서 대단히 고맙다."며

여성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경찰 직원들도 이 여성이 보여준 품격과 시민의식과 인간미에 고마움을 표했다고 사할린주 내무국 홍보실이 전했다.

Сахалинцу вернули забытые в банкомате 25 тысяч рублей

В минувший четверг в дежурную часть управления МВД России по Южно-Сахалинску поступило сообщение от местной жительницы. Она сообщила, что находилась в одном из торговых центров областной столицы, когда обратила внимание на банкомат, в котором

из отсека выдачи наличности виднелась крупная сумма денег. Подумав, что купюры забыл кто-то из посетителей, женщина начала осматривать помещение, но никого рядом не оказалось. Побоявшись за то, что деньги могут достаться кому-то постороннему, гражданка взяла их себе на хранение и сразу же позвонила в отделение полиции.

Сотрудники правоохранительных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ли заявление женщины и спустя несколько часов установили личность мужчины, который забыл свои сбережения в банкомате. К этому времени гражданка уже была у себя дома. По приезде потерпевшего она передала все денежные средства в размере 25 тысяч рублей хозяину.

— Я очень рад, что мои сбережения нашла именно эта женщина. Она проявила свою сознательность и отдала мне все деньги. Очень ей благодарен за находку, — рассказал потерпевший при встрече с женщиной.

Сотрудники полиции выражают благодарность гражданке за порядочность, сознательность и отзывчивость, которые она проявила в этой ситуации,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УМВД России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사할린 향토박물관, 임시 배로 변신

남사할린의 첫 탐험가인 니콜라야 바실리예비치 루다놉스키의 탄생 200주년 기념 흥미로운 <바다 항해> 행사에 사할린의 주민과 방문객들을 초대한다. 11월 30일 박물관은 거대한 선박으로 변신하여 이곳에서 겐나지 네벨스키의 아무르 탐험 조사단의 연구에 대해 알 수 있으며 '19세기 사할린 개척' 전시회 관람, 매듭 만들기 활동교실과 소년단의 공연이 진행된다. 개장은 낮 12시부터이다. 문의 전화 : 50-50-51

Сахалинский краеведческий музей на время станет "кораблем"

Жителей и гостей области приглашают в увлекатель-

ное "Морское путешествие", посвященное 200-летию со дня рождения Н.Рудановского, первого исследователя юга Сахалина.

30 ноября музей станет огромным кораблем, на котором можно будет узнать об исследованиях участников Амурской экспедиции Г.Невельского, посетить выставку "Освоение Сахалина: век XIX" и мастер-класс по вязанию узлов, пройти посвящение в юнги. Открытие с 12:00.

Справки по телефону: 50-50-51.

모스크바 지하철 승객들 중 극동 여행을 게임으로

<대규모 극동 도전 게임>을 진행하여 모스크바 전철의 각 승객들은 직장 가는 길에 상품과 의미있는 상품을 현재 받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11월 8일부터 콜레보이 노선으로 다니는 특화된 열차 <극동 급행열차(익스프레스)>에 타서 앉아 있기만 하면 된다.

<극동 급행열차>의 특징은 연속적인 경품 퀴즈대회에 있다. 각 객차의 한 칸은 극동지역으로 직행하는 입구로서 역할을 한다. <극동 급행열차>칸에는 큐알(QR)코드가 있는데 이것을 휴대전화로 찍어서 승객들은 도전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게 된다. 2019년11월 8일부터 12월 14일까지 이 기간에 사이트에 등록한 후 첫 단계 경연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연은 <통신>부분과 <직접 참가>부분으로 나뉘어 조성된다.

<통신>부분 도전 게임의 첫 단계는 전철 칸에서 내리지 않고 풀 수 있다. 점수는 온라인 퀴즈게임을 풀고 소셜네트워크에 공유하고 친구를 초대하는 것으로 매겨진다. 모든 등록한 참가자들에게는 놓쳐서는 안 되며, 놓치면 중요한 것을 얻을 수 없는 <직접 참가>부분의 첫 단계 도전 게임이 기다리고 있다.

(8면에 계속)

책 소개

《사할린 잔류자들: 국가가 잊은 존재들의 삶의 기록》

현무암, 파이차제 스베틀라나 지음, 고토 하루키 사진 | 서재길 옮김

(전호의 계속)

또한 사람/상품/지식정보의 이동이 전 세계적으로 순식간으로 이루어지며, '단일민족', '단일국가' 관념이 점점 무의미해지는 시대에, 국가라는 개념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단일한 정체성 속에서 살아가는 삶인지 돌아보게 된다. 특히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생각해 보면, 중국, 일본, 러시아와 면해 있는 우리나라는 더욱더 특정 국경에 국한되지 않는 월경(越境)의 삶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기에 "나는 다면체랍니다. 각도에 따라서, 빛에 따라서 보이는 면이 달라요"라는 귀국자 3세의 말은, 다층의 정체성 속에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찾아나가고 있는 그들을 통해 동아시아 공동체의 미래상을 비춰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게 만들기도 한다.

저자인 현무암과 파이차제 스베틀라나는 이 책에 등장하는 총 열 가족의 구성원들과 오랜 기간 만나고 유대하며 그들의 구체적 삶과 진솔한 생각을 담아냈다. 사할린 잔류자들은 그 생활 문화에 따라 사용하는 언어도 달라서, 일본어/한국어/러시아어를 통해 소통했고, 홋카이도, 삿포로, 안산, 인천, 사할린의 유즈노사할린스크와 코르사코프 등 여기저기에 멀리 퍼져 생활하는 그들을 한 명 한 명 찾아가 그들의 삶을 체험하고 희로애락을 나누며, 그들이 겪어온, 그리고 겪고 있는 삶을 이해하고 옮기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사진작가 고토 하루키의 사진을 더해, 사할린 잔류자들의 삶을 더욱 생생하게 표현했다. 총 열 가족의 이야기를 담았고, 여러 지역에 걸쳐 펼쳐지는 그들의 생활을 제대로 나타내기 위해 각 주제 별로 세 가지 성격으로 나눴다. 1부에서는 1990년대 이후 영주 귀국을 통해 자식 및 손주 세대를 동반하거나 초청하여 일본에 정착한 사람들을 그렸고, 2부에서는 부부만 일본 또는 한국으로 영주 귀국한 후 사할린에 남거나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가족과 왕래함으로써 일본, 한국, 사할린에 걸친 생활공간을 왕래하는 사람들을 다룬다. 3부는 일본이나 한국으로 영주 귀국하지 않고 사할린에서의 삶을 선택한 사람들의 이야기다. 또한 이들 가족의 이야기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책 후반부에 해설을 덧붙여 사할린 잔류자들이 처했던 역사적 배경과 사할린의 역사적 위치를 설명했다. 사할린에서 벌어졌던 일본 통치 시대의 시정(施政)이나 조선인의 입, 패전 직전의 혼란과 귀환, 전후 조선인 사회로의 편입과 영주 귀국 등의 역사와 현재를 되돌아보았다.

사할린 잔류자들의 삶을 통해 동아시아 위기의 실마리를 찾다

사할린 잔류자들의 삶을 살펴보는 것은 한·일 양국 관계를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하다. 사할린 잔류자들 각각이 살아가는 모습은 서로 차이가 있고 다양하지만, 영토, 역사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한 대립과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는 양국의 위기를 뛰어넘는 데 있어,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일은 충분히 의의가 있기 때문이다. 전전과 전후 사할린에서 이루어진 한국인과 일본인 가족의 다층적·다문화적 삶을 이해함으로써, "두 민족의 한계를 돌파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매개자 사상"(모리사키 가즈에)을 그들에게서 읽어낼 수 있을 거라 기대되고 있다.

'잔류'라는 운명을 공유한 일본인과 조선인이 살던 사할린은 식민지 지배와 전쟁에 의해 왜곡되고 일그러진 공존의 세계였다. 그러나 사할린 잔류자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국과 일본이 대립하고 있는 역사 문제와는 다른 전후의 생활 세계가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지은이 및 옮긴이 소개

현무암(지은이)

1969년 제주도 출신. 도쿄 대학 대학원 인문사회계 연구과 박사. 현재 홋카이도대학 대학원 미디어커뮤니케이션연구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반일'과 '혐韓'의 동시대사(「反日」と「嫌韓」の同時代史)》, 《코리아 네트워크(コリアン・ネットワーク)》, 《기시 노부스케와 박정희》(공저) 등이 있다.

파이차제 스베틀라나(지은이)

1972년 러시아 출신. 홋카이도대학 국제홍보미디어 연구과 박사. 현재 동대학 대학원 미디어커뮤니케이션연구원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급변하는 러-일 변경의 목소리(Voices from the shifting Russo-Japanese border)》(공저) 등이 있다.

고토 하루키(사진)

1985년 오사카 출생. 일본 사진예술전문학교 졸업. <내리는 눈 한 송이가 사람을 증만하게 할 때까지, 그로부터 3년: MONEHT>, <봄이 오기 전에> 등 몇 차례의 사진전을 가졌다. 지은 책으로 《사할린을 잊을 수 없어(サハリンを忘れない)》가 있다.

서재길(옮긴이)

1971년생.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박사. 현재 국민대 한국어문학부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식민지 공공성: 실체와 은유의 거리》(공저), 《조선 사람의 세계여행》(편저) 등이 있으며, 옮긴 책으로 《대학이란 무엇인가》, 《라디오 체조의 탄생》이 있다.

(끝)

(출처: 책과 함께 신간)

한민족 공동체 실현을 위한 2019 사할린 아리랑제

한국·중국·러시아 등지 예술인들, 사할린에서 '아리랑' 노래를 펼치다



지난 16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에서 한겨레 아리랑연합회·사할린주 한인협회 공동 주최, <아리랑 스프링>의 주관으로 제3회 <사할린 아리랑제>가 열렸다. 한민족 공동체 실현을 위한 이 아리랑제는 한국(울릉도, 제주도, 춘천, 양주, 영천, 예천 등지), 중국, 러시아의 하바롭스크 및 사할린 예술인 40여 명이 다양한 아리랑 노래로 아름다운 무대를 펼쳤다.

200여 명의 관객들을 향해 사할린주 한인협회 박순옥 회장, 한겨레 아리랑연합회 김연갑 이사장 대행, 주유즈노사할린스크 한국 영사출장소 광기동 소장이 인사말을 전했다. 광기동 소장은 이 아리랑제는 사할린 사람들에게 한국 문화를 알리는 축제이며 문화 교류 확대를 위한 자리라고 강조하고 이런 문화 교류가 앞으로 더욱 많아져서 동포들이 힘과 용기를 얻게 되길 기원했다. 박순옥 회장은 특히 아리랑 노래는 한민족의 상징이 되었고 사할린에 수십 년 살고 있는 동포들에게 아리랑은 민족의 마음을 드러내는 노래라고 했다.

김연갑 이사장 대행은 사할린에 온 이유가 세 가지 있다면서 하나는 먼저 가신 1세대 영령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또 다른 하나는 해외 동포들과 사할린 동포, 그리고 사할린 현지인들과 교류를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아리랑을 주제로 해외 동포 및 현지인들과 합동공연을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공연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되어 진행되었다. <바치는 아리랑>부분은 이옥순 영덕 아리랑보존회의 '살풀이 아리랑'으로 막을 열어 사할린 강제동원 피해자 영령들을 기리듯 불렀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래를 넘어간다
풍과 사나운 바다를 건너
한 많은 남화태(사할린) 정용왔네
철막 장벽은 높아만 가고
정겨운 고향길 막연하다

정태식 웅(새고려신문) 2002-2003년 <사할린아리랑> 가사 공모전 당선작)의 이 사할린아리랑을 반주 없이 불러준 김명기 선생은 다시 한번 사할린 한인사를 생각하게 하였다. 이미 사할린에서 공연한 적이 있는 통일양상블(윤은하 7인조 밴드, 중국 조선 동포들로 구성)은 아리랑 환타지를 멋있게 연주했고 서울 왕십리아리랑보존회의 이해술 소리꾼의 '왕십리아리랑'도 아주 좋았다.

<함께 아리랑>을 부른 북한 출신의 최신아 무용수가 쟁강춤을 추자 관객들은 큰 환호를 보냈다. 이날 공연 출연자들 모두가 인상



적이었다. 영천아리랑연구보존회의 <영천아리랑>, 춘천의병아리랑보존회의 <의병아리랑>, 사할린한인문화센터 소속 <아리랑>무용단(단장 박영자)의 출연도 관객들의 환영 가운데 펼쳐졌다. 제주 아리랑보존회의 제주 아리랑은 해녀들의 고달픈 모습을 연출하며 불렀다.

양주아리랑보존회에서는 '고종의 아리랑'을 소극으로 펼쳐 관객들의 눈과 귀를 끌었다. 조선의 왕 고종의 역할을 송규철 소리꾼이 맡아 한민족과 사할린 한인의 힘겨운 역사에 대한 안타까움을 담아 연출해 관객들에게 공감과 감동을 전해주었다.

3부는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에트노스>아동예술학교(교장 위로호와 안나) 학생들의 공연으로 이어졌다. 한민족 예술과의 <도라지>무용단(지도 김 예브게니야)은 경고춤으로 관객들의 흥을 돋우었고 흔히 볼 수 없는 러시아 민속과의 전통악기 비파의 연주는 젊은이들의 힘찬 기운을 느낄 수 있었다.

<새로운 아리랑>부문에서는 아리랑을 새로운 버전으로 편곡한 울릉도아리랑보존회의 활효숙 소리꾼, 예천아리랑보존회의 장경자 소리꾼, 하바롭스크의 김 겐나지(김석복)·신 이리나 부녀가 불러준 <코레이스키 아리랑> 등으로 이어졌다.

(7면에 계속)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Южная Корея изучила сахалинский опыт инициативного бюджетирования



С рабочим визитом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посети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министерства финансов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Гёнчхан Пак. Он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в тематическом семинаре, на котором поделился лучшими корейскими практиками "Инициативного бюджетирования", а также подробно изучил сахалинские и курильские проекты.

В своем выступлении Гёнчхан Пак рассказал, как эта программа реализуется в Южной Корее. К примеру, достаточно много средств там тратят на воспитание детей. Чтобы помочь родителям сэкономить, они запустили передвижную библиотеку игрушек. Еще одна необычная инициатива — обустройство парка на месте бывшей свалки — там открыли обсерваторию, библиотеку и выставочный центр. Также внимание в рамках "Инициативного бюджетирования" в Корее уделяют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ю, экологии, госуправлению, борьбе с самоубийствами и бедностью среди пожилых люде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минфина высоко оценил проекты, которые реализуют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частности, ему понравился сквер с памятником сивучам, который сегодня обустраивают в Невельске. По мнению специалиста, такие объекты необходимы для развития туризма.

— Мне очень понравилось, как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рганизована работа с жителями. Этот опыт надо перенимать. Конечно, у нас проекты тоже обсуждаются на массовых собраниях, но это происходит только в небольших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ах. В целом наши практики очень похожи, — отметил директор департамента партисипаторного бюджетирования минфин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Гёнчхан Пак. — Меня впечатлило, что жители

вашего региона очень инициативны. Они не боятся предлагать свои собственные идеи и бороться за них.

Кроме того, специалист побывал в восьмой школе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Здесь ученики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го учреждения представили проекты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Молодежный бюджет". Среди них — обустройство современной библиотеки, создание школьного радио, техническое обновление актового зала, ремонт гардероба и спортивного зала. В ближайшие недели в школе проведут голосование, на котором определяют самые перспектив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работы. На реализацию задумок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му учреждению выделяют 3 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 Презентации были очень хорошие. Например, радио — отличная идея, а оборудование, которое вы планируете получить, после дет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а можно использовать шире. Желаю вам успехов, — оценил работу школьников Гёнчхан Пак.

Программа "Инициативное бюджетирование" позволяет получить средства от государства на проекты, которые жители считают наиболее значимыми. Сегодня эта программа действует в 60 регионах России.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была одним из пионеров. В 2017 году годовой объем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проектов составлял лишь 50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К 2019-му сумма выросла до полутора миллиардов. Деньги выделяют сразу по трем направлениям — "Поддержка местных инициатив", "Молодежный бюджет" и "Развитие территорий". По объемам вложений сахалинское "Инициативное бюджетирование" считается крупнейшим в России и одним из самых масштабных в мире,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област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ий Ариран 2019 прошел на сцене ККЦ

16 ноября в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состоялся 3-й фестиваль «Сахалинский Ариран». Ради укрепления связей между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ми и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обмена — таков девиз этого фестиваля. Он собрал на одной сцене людей искусства из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Чхунчондо, Сеул, Чечжудо, Уллындо, Ечон и др.), Китая и России (Хабаровск и Сахалин).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фестиваля стали Ассоциация Ариран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ри поддержке фондов и организаций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ахалинцам были представлены различные вариации песни Ариран в исполнении танцевальных и песенных коллективов, а также прозвучала музыкальная композиция «Фантазии на тему Ариран» (ансамбль Воссоединения - бэнд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Юн Ын Хва/Китай).

Своеобразным подарком стало выступление коллективов детской школы искусств «Этнос». Танцевальный коллектив «Доради» исполнил танец Гёнгю, а учащиеся отделения русского наро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подарили игру на гуслях.

Каждому корейцу очень близка песня Ариран. И прошедший фестиваль лучшему тому доказательство.



Виктория Бя
Фото: Ли Е Сик

Гоголь и клевер: урок в музее

Иностранные студенты Института филологии, истори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СахГУ, изучая русский язык и литературу, часто посещают разные культурно-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учреждения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библиотеки, музеи и театры.

Методист по музейно-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музея Нина Завадская — недавняя выпускница СахГУ. Сейчас девушка продолжает обучение в магистратуре по направлению «Филологическое образование» и в рамках учебной дисциплины по методике преподавания литературы дает пробный урок для иностранных студентов, обучающихся на острове. На своём занятии Нина Завадская, рассказывая о повести Николая Гоголя «Портрет», находит соответствия между жизнью литературных героев русского писателя и фактическими событиями из биографии русского живописца Юлия Клевера.

Урок Нины Завадской разбивается на две части. Сначала в лекционной аудитории студенты знакомятся со временем создания гоголевского «Портрета» и его героями — художником Чартковым, специализирующимся на светских портретах, и художником Б., создавшим портрет некоего человека в азиатских одеждах. Китайские, корейские и японские студенты читают вслух фрагменты повести, уточняют значение устаревших или малоизвестных для них слов. А затем перемещаются в зал постоянной экспозиции «Русское искусство XIX — начала XX века»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музея. Именно там для студентов впервые звучит имя Юлия Клевера и именно там можно увидеть две картины художни-



ка — «Осень» и «Закат зимой». В интригующем рассказе Нины Завадской Юлий Клевер в молодые годы сочетает в себе отдельные черты, роднящие его с художником Чартковым, а в поздние годы, пересмыслив свой прежний путь, возвращает в себе то отношение к искусству, которое было близко Гоголю и которое отразилось в жизненных ценностях художника Б.

Картины Юлия Клевера сегодня представлены не только в известных музеях страны, но и на Сахалине. А вот о том, что общего между художником Юлием Клевером и гоголевскими персонажами можно узнать при максимально внимательном чтении «Портрета» и детальном изучении биографии русского художника, жившего на рубеже XIX — XX столетий.

Студент Пусан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Ли Мин Сок уже не первый раз посещает Сахалинский областной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музей, но впервые присутствует на таком необычном уроке. «Прежде я ничего не знал о Гоголе — говорит юноша, — и не читал повесть «Портрет». Я не видел картин Клевера. Когда я вернусь в Корею, то прочитаю эту книгу на родном языке».

ЕЛЕНА ИКОННИКОВА,
профессор СахГУ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РК и Россия расширяют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сфере культуры

Министр культуры, спорта и туризма РК Пак Ян У и министр культуры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 Мединский подписали 16 ноября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рабочее соглашение о взаимном культурном обмене. В нём зафиксирована договорённость активизировать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в 2020-2021 годах по случаю 30-летия установлени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двумя странами. РК приглашена на Санкт-Петербургски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культурный форум 2021 года в качестве особого гостя. В ходе форума планируется провести ряд мероприятий, посвящённых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е. Министр Пак Ян У оценил вышеуказанное соглашение как повод к расширению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сферах культуры, туризма и торговли. Российская сторона проведёт ряд культур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в РК. Так, в 2021 году в стране пройдёт фестиваль "Русские сезоны". Это масштабный проект, инициированный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России и министерством культуры, нацеленный на представление российской культуры зарубежным странам. В его рамках на протяжении календарного года проходят гастроли лучших российских творческих коллективов, выставки из собраний крупнейших музеев, фестивали циркового искусства, премьеры российского кино, ледовые и цирковые шоу и другие проекты.

В Пусане пройдёт выставка технологий «умных городов»

С 25 по 27 ноября в Пусане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выставка технологий «умных городов», приуроченная к специальному саммиту РК-АСЕАН.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18 ноября в министерстве сухопутных территорий и транспорта. В рамках мероприятия 119 профильных компаний из десяти стран АСЕАН и РК представят свои разработки в Пусанском центре выставок и конференций. На выставке можно ознакомиться с системами и концепциями «умных городов» стран региона, технологиями беспилот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и другими разработками, которые планируется внедрить в Пусане и Сэчжоне.

14 ноября южнокорейские школьники сдавали единый госэкзамен

14 ноября в РК состоялся ежегодный едины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экзамен. Его сдавали 548.734 человека, в том числе, 394.024 учащихся выпускных классов школ, желающих поступить в вузы в 2020 году. Общее число сдающих экзамен было на 46.190 человек меньше, чем в прошлом году. Экзамен проходил в форме тестирования с 8:40 до 17:40, включая перерывы на обед и отдых, в пять этапов: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и литература, математика, английский язык, история Кореи и по выбору естественные или общественные науки, второй иностранный язык или иероглифика. Как сообщи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образования, по всей стране были открыты 1.185 экзаменационных пунктов. Для того, чтобы дать возможность экзаменуемым сосредоточиться, по решению правительства было закрыто автомобильное движение вблизи экзаменационных пунктов. Для того, чтобы учащиеся могли вовремя попасть на экзаменационные пункты,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и частные компании перенесли начало рабочего дня на час позже. В течение 35 минут с 13:05, когда проходил экзамен по аудированию на английском языке, аэропорты прекратили приём и отправку самолётов, скорректировав расписание. Результаты экзамена будут объявлены 5 декабря.

Крупнейшие компании РК сократили инвестиции

В этом году объём инвестиций 272 филиалов 30 крупнейших компаний РК составил 54 трлн 326 млрд 400 млн вон или 46 млрд 600 млн долларов. Это на 16,6% меньше, чем в прошлом году. Такие данные представила аналитическая компания CEO Score. Основная часть суммы – 41,5 млрд долларов - пришлась на приобретение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и недвижимости. Отметка сократилась на 9 млрд долларов. Однако в сфере исследований и разработок показатель вырос на 513 млн 700 тыс. долларов, составив 5 млрд долларов. Общее сокращение инвестиций во многом обусловлено снижением вливаний крупнейших компаний Samsung Electronics, SK Hynix и LG Display.

В Пусане состоялась выставка игр G-STAR 2019

14 ноября в Пусане открылась крупнейшая в стране выставка игр G-STAR 2019, которая продлилась до 17 ноября. В ней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691 компания из 36 стран. Одним из главных спонсоров выступила финская студия-разработчик Supercell, создавшая мобильную игру Clash of Clans. В мероприятии впервые приняла участие компания YouTube.

(RKI)

Мун Чжэ Ин отверг требования США продлит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Японией

Президент Южной Кореи Мун Чжэ Ин занял принципиальную позицию, заявив министру обороны США, что несмотря на все уговоры Вашингтона Сеул не пойдёт на продление с Японией Договора об обмене военной информацией, известного под аббревиатурой GSOMIA. Соединённые Штаты считают, что такой шаг Сеула подрывает их усилия по созданию многосторонней системы коллективной воен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в регионе при главенстве США. Корейцы и американцы также не могут договориться по поводу того, сколько Сеул должен платить за пребывание войск США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отказываясь соглашаться на требования Вашингтона резко увеличить расходы. Эксперты не исключают, что Соединённые Штаты продолжат давление на Корею и могут припомнить корейцам их строптивость.

Напомним, что несколько месяцев назад японо-южнокорейские отношения вошли в полосу серьёзного обострения, и конфликт продолжается до сих пор. Дело дошло до введения двусторонних экономических санкций и прекращения самого разного рода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по всем направлениям. Сеул также заявил, что намерен отказаться и от воен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Японией, аннулировав Соглашение об обмене военной информацией GSOMIA. Хотя прошедшие недавно встречи президента РК Мун Чжэ Ина и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а Южной Кореи Ли Нак Ёна с главой правительства Японии Синдзо Абэ позволили сбить накал и убрать эмоциональную составляющую противостояния, но стороны остались на прежних позициях, требуя уступок друг от друга и фактически обвиняя противоположную сторону в конфликте. США же стали давить на Корею, чтобы та хотя бы изменила решение по GSOMIA, так как это идет вразрез со стратегией Вашингтона в Восточной Азии.

"Нам крайне сложно говорить о возможности продления договора об обмене закрытой информацией с Японией, которая под предлогом недоверия к нам ввела против нашей страны экономические ограничения", - такова была вчера реакция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РК) Мун Чжэ Ина в ответ за настойчивые просьбы министра обороны США Марка Эспера отменить прежнее решение Сеула и продлить договор. О содержании переговоров Муна с Эспером сообщила пресс-секретарь президента РК Ко Мин Чжон. Мун все же дал понять американскому министру, что Сеул может изменить свою позицию, если Токио отменит экономические санкции. Учитывая, что ранее Япония уже заявила о невозможности подобного сценария и с учетом, что до истечения срока договора остается лишь неделя, то это было воспринято как "последний гвоздь в крышку гроба" над GSOMIA.

Глава Пентагона же не стал скрывать своего разочарования. В ходе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по итогам общения с министром обороны РК Чон Гён Ду Марк Эспер заявил следующее: "GSOMIA - крайне важный механизм эффективного обмена информацией между Южной Кореей, США и Японией, особенно в случае войны. Прекращение действия GSOMIA повлияет на эффективность наше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Только Пекин и Пхеньян будут рады тому, что этого договор прекратит действовать", - сказал Эспер. Ранее в том же ключе один за другим высказались и другие высокопоставленны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ША, которые на днях устроили своего рода "дипломатическую осаду" южнокорейских министерств 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требуя сохранить GSOMIA.

Однако, как видно, для Мун Чжэ Ина оказалась важнее принципиальная позиция, которую разделяют, согласно последним опросам, и большинство корейцев. Столкновение с Японией корейцы восприняли очень близко к сердцу, а потому Муну это было трудно игнорировать.

Как оказалось, вопрос о договоре с Японией стал не единственным, по которому Сеул и Вашингтон говорят о наличии явных разногласий. Аналогичный "ушат холодной воды" Марк Эспер получил вчера и в ходе четырёхчасовых переговоров с министром обо-

роны РК Чон Гён Ду в рамках 51-го раунда Совещания по вопросам безопасности (SCM). Правда, тут камнем преткновения стали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деньги.

США требуют, чтобы Сеул более чем в пять раз повысил выплаты за пребывание на территории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американского военного контингента численностью в 28500 человек. Сейчас Южная Корея платит немногим менее миллиарда долларов, но США с подачи Дональда Трампа теперь требуют сразу пять миллиардов. Сразу следует подчеркнуть, что корейцы не хотят ухода американских войск, но отказываются раскошелиться, считая, что Вашингтон "завышает ценник".

Все это в очередной раз стало очевидно в общении Эспера и Чона. Хотя консультации завершились ещё в половине второго дня, но совместное заявление стороны не смогли огласить почти до шести часов вечера. По слухам, это произошло из-за разногласий в позициях. Кроме того, не было достигнуто и конкретных договорённостей. Эспер в ходе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сказал, что Корея уже "богатая страна", а потому она "могла бы, и ей следует" взять на себя большее финансовое бремя по пребыванию войск США. Тут, как говорится, были даже не "прозрачные намеки", а по-армейски прямое заявление "в лоб", адресованное Корее: "Вы должны платить больше!" Южнокорейский министр же заявил, что бремя надо нести "совместно" и "на равных условиях". В целом Чон Гён Ду выразился более дипломатично, но также не менее определенно: "Мы и так уже платим достаточно!"

Таким образом,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ясно обозначились сильные расхождения между Сеулом и Вашингтоном по ключевым вопросам, имеющим отношение к безопасности и обороне, хотя ранее союзники даже когда и спорили, предпочитали "не выносить сор из избы". Судя по всему, и времена изменились, да и проблемы таковы, которые воспринимаются как "дело принципа".

Понятно, что это отнюдь не означает прекращение воен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и альянса между США и РК, но разница в подходах налицо. Впрочем, нельзя исключать, что, как это часто бывало, в самый последний момент США, РК и Япония найдут какой-то обходной маневр и сохранят GSOMIA или Сеул попросту не выдержит давления Вашингтона, так как и в самой Южной Корее слышны голоса тех, кто считает, что "не надо ссориться со старшим братом".

Примечательно, что по вопросу денег корейцы более категоричны. Корея настроена на сохранение военного контингента США, но не хочет платить по тому счёту, который выставил ей за пребывание "джи-ай" Дональд Трамп и озвучил в очередной раз Марк Эспер.

Как бы там ни было, высока вероятность, что такая строптивость и принципиальность Сеулу может и "аукнуться". У Вашингтона хватает рычагов давления на Южную Корею. По тому же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му направлению, на которое Мун Чжэ Ин сделал ставку в своей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й повестке. Сеул сейчас шага ступить не может без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го согласования с Вашингтоном. Да и проамериканское лобби и общественные настроения в пользу США весьма сильны в Корее, возрастая по мере увеличения уровня зажиточности конкретных корейцев. Это заметно по опросам общественного мнения: обычно "богатые и властные" в Корее куда более лояльны к США, чем те, кто живет скромнее. Потому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резидента РК Мун Чжэ Ина подвергается давлению не только со стороны Соединённых Штатов, но и от влиятельных политических сил и общественных слоев своей страны.

У США же, напомним, есть и более веские причины проучить корейцев помимо простого стремления "показать кто в доме главный". Сейчас действия Южной Кореи стали идти вразрез с глобальной стратегией Соединённых Штатов в Восточной Азии, что уже воспринимается в Вашингтоне как весьма серьёзный вызов.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1-е полугодие 2020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ое полугодие—**570 руб. 90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вершается формирование новой структуры сахалин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ставил перед чиновниками задачу – добиться иного качества жизни на островах. Оно должно выйти на новый уровень, поэтому в работу региональных властей войдет целый комплекс направлений деятельности. Начиная с увеличения продолжительности жизни островитян и заканчивая повышением качества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и экологии. Сахалинцам и курильчанам должны быть доступны удобное и современное жилье, хорошие дороги, чистые воздух и вода, широкие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образования, качественная медицина и продукты мест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Новая управленческая структура органов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е подразумевает увеличения численности штатных единиц. Работа должна быть выстроена таким образом, чтобы действующие сотрудники справлялись с повышенным объемом задач. Это будет учитывать и KPI – новая система оценки эффективности. Доход руководителей региональных и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рганов власти будет зависеть от того, насколько успешно они выполняют свою работу. Проанализировать это помогут ежеквартальные показатели. Так, одна из задач, которая стоит перед зампредом Антоном Зайцевым – повышение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привлекательности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А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област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ергей Наумов будет отвечать за снижение смертности от сердечно-сосудистых заболеваний и онкологии. Изменения затронут и работу глав муниципалитетов. Их доходы будут напрямую зависеть, например, от качества и комфортности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В структуре органов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будет два главных блока: администрация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соста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войдут структуры: министерств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блок внутренней политики, правовой департамент, департамент информационной политики, управление по работе с обращениями граждан, контрольное управление и другие подразделения.

Руководить администрацией будет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губернатора. Он будет отвечать за развитие территорий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и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властей с жителям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том числе в его обязанности войдет курирование обратной связи от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по всем каналам: через социальные сети, сервис «Сахалин.онлайн», «Окно доверия», горячую линию «1–300». Главной оцен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первого заместителя губернатора будет повышение доверия со стороны населения ко всем уровням власти.

В обширный круг обязанностей первого замгубернатора войдет кадровая политика. Департамент кадровой политики преобразуют в министерств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которое будет решать вопросы подбора специалистов, их обучения, переподготовки, материального и нематериального стимулирования и формирования кадрового резерва.

В состав обновлен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ойдут как новые, так и прежние структуры. Перестанет существовать министерство по регулированию контрактной системы в сфере закупок. Этой работой будет заниматься министерств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При этом контрольную функцию за соблюд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 госзакупках станет выполнять министерство финансов.

Из двух ведомств будет образовано министерство экологии. Это произойдет за счет объединения министерства природных ресурсов и охраны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и министерства лесного и охотничьего хозяйства. При этом нефтегазовые проекты, которые сегодня курирует минприроды, перейдут в ведение минэкономразвития.

Агентство по развитию электроэнергетики и газификации будет преобразовано в министерство энергетики. Этого требует масштаб проектов, которые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начал осуществлять в энергетической сфере.

Министерство цифрового развития и связи получит новое название – министерство цифрового и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Оно будет работать в плотном взаимодействии с министерством по эффективному управлению регионом, оптимизируя работу структур остров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Министерство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присоединится к министерству торговли и продовольствия региона. В его подчинение войдут агентство по рыболовству и агентство ветеринарии и племенного животноводства.

– Новая структура правительства должна обеспечить выполнение масштабных задач, которые сегодня стоят перед регионом. Среди них – газификация всех районов области, удвоение темпов строительства жилья и асфальтирования дорог, медицинская реформа и обеспечение транспортной доступности, – сказал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ей Белик.

Отметим, изменения в структур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направлены на оптимизацию деятельности органов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и повышение эффективности управления. В этом году будет ликвидировано два министерства, три агентства и ряд других органов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Это позволит исключить дублирование функций и объединить усилия для реализации общих проектов.

Сахалинская команда отправилась на финал V Национального чемпионата «Абилимпикс»

Заключительный этап конкурса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мастерства среди людей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проходит с 18 по 22 ноября в Москве. Туда приглашены победители региональных чемпионатов из 84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Участниками V Национального чемпионата стали более 1800 конкурсантов и около 500 экспертов.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в этом году представляет внушительная по составу команда из 60 человек. В их числе 21 конкурсант – школьники, студенты и специалисты. В состав сахалинской делегации также вошли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й психолог, медицинский работник и сурдопереводчик. За каждым конкурсантом закреплен личный сопровождающий.

Сахалинцы выступают в 18 основных компетенциях: «Администрирование баз данных» (школьники), «Бисероплетение» (специалисты), «Изобразительное искусство» (школьники), «Малярное дело» (студенты/специалисты), «Поварское дело» (студенты), «Портной» (студенты), «Вязание спицами» (специалисты), «Гончарное дело» (школьники), «Документационное обеспечение управления и архивоведение» (студенты), «Швея» (студенты, школьники, специалисты), «Ландшафтный дизайн» (студенты), «Робототехника» (школьники), «Брошюровка и переплетное дело» (студенты), «Столярное дело» (студенты), «Дизайн персонажей/Анимация» (школьники), «Художественное вышивание» (специалисты), «Вязание крючком» (специалисты), «Разработчик виртуальной и дополненной реальности» (школьники).

В программе соревнований предусмотрена деловая часть – обсуждение проблем социальной интеграции молодых людей с ОВЗ, мастер-классы, выставки-ярмарки. В ней примут участие руководители островных учреждений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 Одной из задач деловой программы станет поиск путей создания универсальной среды и цифрового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для людей с инвалидностью. Также мы обсудим их мотивацию для занятий общественной и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ью, – рассказала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Елена Бабина.

Отметим, что чемпионат проходит в два этапа: отборочные соревнования по наиболее многочисленным компетенциям (18-19 ноября) и финал (20-22 ноября).

Добавим, чт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рисоединилась к международному движению «Абилимпикс» в 2016 году. За это время регион достиг значимых результатов при содействии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инвалидов и работодателей. Был создан и успешно работает региональный центр развития движения «Абилимпикс». Островная сборная уже накопила восемь федеральных наград. В прошлом году команд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пала в топ-10 регионов по медальному зачету в Национальном чемпионате в Москве. Тогда сахалинцы привезли с нацинала одну золотую, две серебряные и две бронзовые медали.

Профессорский десант из Тихоокеанского медуниверситета проконсультировал сахалинских пациентов

Три дня подряд пациентов со вс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 сложными клиническими случаями консультировали ведущие специалисты Владивостока. За это время высоко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ми врачами осмотрено порядка 400 пациентов.

Визит профессорско-преподавательского состава Тихоокеа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на Сахалин стал уже четвертым. На этот раз специалисты высокого уровня вели осмотры пациентов на базе областной клинической больницы и детской областной больницы.

– Основная задача нашего десанта – научная и интеллектуальная поддержка врачей вашего региона, – говорит главный сосудистый хирург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профессор ТГМУ Виктор Раповка. – Вместе с островными коллегами мы осматриваем пациентов и в виде консилиума обсуждаем вопросы лечения и дальнейшей реабилитации пациентов, рассказываем о новых методах обследования и технологиях современной медицины. Мы не только обучаем, но и сами учимся у коллег. Это взаимовыгодная работа, от которой выигрывает,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пациент.

В составе медицинского десанта – сосудистый хирург, ревматолог, невролог, травматолог-ортопед, эндокринолог. В первую половину дня врачи работали в консультативной поликлинике, во вторую – вели осмотр пациентов в стационаре. Рассматривали преимущественно сложные случаи, требующие диагностического поиска в подходе к лечению.

– С современными методами диагностики и лечения ревматических заболеваний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накомы отлично, – отмечает врач-ревматолог, доцент института терапии и инструментальной диагностики ТГМУ, кандидат медицинских наук Максим Кабалык. – Сегодня наша задача – сосредоточить внимание на

особенностях пациента и подобрать более индивидуализированное лечение, а в некоторых сложных случаях оказать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ескую помощь, в которой нуждаются больные.

Такие консультации у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пользуются огромным спросом. На осмотры приезжают пациенты со всей области. Каждый из них предварительно проходит диагностические процедуры, чтобы врачу было легче анализировать ситуацию и давать рекомендации по лечению.

– Каждый визит профессорского состава ТГМУ на Сахалин – настоящее событие, – говорит заведующая консультативной поликлиники областной больницы Наталья Абросимова. – Это отличная возможность повысить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й уровень наших специалистов. И параллельно проконсультировать тяжелых пациентов. Часть из них нуждается в уточнении диагноза, другим требуется корректировка лечения.

Работа по привлечению в регион высоко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ведется в рамках соглашения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между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Тихоокеанским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медицинским университетом. Такие «профессорские десанты» прибывают на остров дважды в год.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едложил Минтрансу увеличить срок действия приказа о субсидированных авиаперевозках

С такой инициативой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ыступил на стратегической сессии в Твери. Специалисты Министерства транспорта РФ и транспортных компаний, главы субъектов обсуждали стратегию развития региональных и местных авиаперевозок в России.

По мнению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выстраивать работу в области субсидированных перелетов по социально значимым маршрутам необходимо как минимум на 3-5 лет. А приказ Росавиации охватывает период только в один год.

– Краткосрочные договоры не позволяют авиакомпаниям увеличивать и обновлять авиапарк, готовить пилотов и технический персонал. Поэтому срок действия документа необходимо продлить, – считает губернатор. – Вопрос доступности авиаперевозок жизненно важен для нашей единственной в стране островной области. Наша задача – сделать Сахалин, который находится на пересечении ключевых воздушных и морских путей, крупным пассажирским и грузовым транспортным узлом. Ведем сейчас переговоры с перевозчиками, приглашаем их к себе. С этой же целью субсидируем билеты.

Еще один вопрос, который гла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днял во время стратегической сессии – необходимость выделения федерального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на субсидирование авиаперевозок. Единые тарифы для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обеспечиваются сегодня за счет средств региональной казны. Федеральные субсидии позволяют высвободить сред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го бюджета и направить их на повышение транспортной доступности и на решение других первоочередных для жителей вопросов.

По поручению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ведется работа по расширению сети внутриобластных и межрегиональных авиамаршрутов, по снижению стоимости авиабилетов. С 1 апреля утвердили единые тарифы на перелеты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вне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места регистрации. Возобновились рейсы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 Шахтерск и Ноглики. Впервые было запущено вертолетное сообщение на Курилах, соединившее Итуруп, Кунашир и Шикотан.

С 1 июня к постоянным рейсам из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во Владивосток и Хабаровск добавилась возможность регулярно летать в еще три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города – Благовещенск, Комсомольск-на-Амуре, Петропавловск-Камчатский.

Глава региона добился возвращения на Сахалин крупнейшего авиаперевозчика страны. С 27 октября «Аэрофлот» возобновил перелеты между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м и Москвой. При этом сохраняется ежедневный рейс дочерней компании «Россия». Таким образом, количество рейсов в столицу страны и обратно увеличилось с одного до двух зимой и с двух до трех – летом.

Билеты на 2020 год уже поступили в продажу. «Плоские» тарифы субсидируются из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Стоимость перелета «Аэрофлотом» составляет 15660 рублей в одну сторону и 26100 – туда и обратно.

Большое внимание руководство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уделяет также развитию транспорт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Есть планы по развитию малой авиации и восстановлению сети советских аэродромов. Тогда станут возможны перелеты в Тымовский,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ий и другие районы области.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должны ввести в эксплуатацию новый аэровокзал с потенциальной пропускной способностью до 5,8 миллиона пассажиров. Нынешний аэропорт принимает около 1 миллиона человек. Также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о строительстве новой взлетно-посадочной полосы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 ее планируется ввести в 2023 году.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부산 안데르센 극장 대표, 사할린 인형극장 한국으로 초청 표명

지난 15-17일간 부산 안데르센 극장 강혜란 대표가 사할린을 다녀갔다. 강 대표의 사할린 방문 목적은 사할린 인형극장과의 교류를 위해서다.

"안데르센 극장 자체가 기장군에서 만든 극장이고 어린이와 청소년 전용 극장입니다. 이런 극장은 대한민국에 세 개밖에 없습니다. 저희 극장에서 러시아 작품을 하나 초청을 하고 싶고, 관객들에게 저희가 만든 것뿐 아니라 다양한 양식을 보여주고 외국 작품도 하나 보여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사할린을 찾아왔습니다"라고 강혜란 대표가 기자에게 알렸다.

부산 러시아인 칼리지 정영순 (정 잔나 블라지미로바) 교장 선생의 협조로 강혜란 대표는 지난 16일 (토) 사할린 인형극장을 방문해 안토니나 도브롤류보와 예술감독을 비롯해 극장 관계자와 미팅을 갖고 서로의 극장에 관한 내용과 다양한 작품 목록에 관해 공유하고, 두 가지 공연 관람을 했다.

"11명의 배우들이 열연을 하는 '장화신은 고양이' 공연은 중간에 인터미션이 있는 것이 우리의 공연과는 약간 다른 모습이고, 1-3세 유아를 위한 공연장이 따로 있어 엄마의 품에 안겨 공연을 관람하는 모습, 간혹 아이의 이쁜 울음소리도 들렸지만, 우리 극장은 보통 4세 이상으로 관람 연령을 제한하고 있어서 아기들은 공연 관람의 기회를 얻기가 힘든 형편인데 작은 극장이 있는 것도 부러운 부분이다.

극장은 부러울 정도로 분업화 되어 있었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 극장에서 좋은 작품을 위해 매진하고 있었다. 많은 공간들이 있어 소품이나 의상,



인형 등이 잘 정돈되어 있는 것도 우리 안데르센 극장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로비에 전시된 공연 사진들과 다양한 소품들도 극장의 기품과 역사가 엿보였고, 인형극장 단원들의 정성어린 손길도 느껴졌다."고 강 대표는 소감을 말했다.

"앞으로 사할린 인형극장과 기장군의 안데르센 극장이 서로 좋은 공연들을 나누며, 작품을 개발하고, 예술을 사랑하는 마음을 함께 키워가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혜란 대표가 덧붙였다.

사진 (왼쪽으로부터: 아.도브롤류보와 예술감독, 강혜란 대표, 게.치첸코 부관장, 정 잔나 교장.

(배순신 기자)

[우리말로 깨닫다]

우리는 참 다행이다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일을 참 많이 만납니다. 몸에도 마음에도 병이 생기고, 주변에 친구나 가족에게 불행한 일이 닥쳐옵니다. 오죽하면 인생을 고해(苦海)라고 했을까요? 고통의 바다처럼 괴로움의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온다는 뜻일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면 이런 고통을 이겨낼 자신도 사라집니다. 그럼 더 우울해 집니다. 아직 닥치지 않은 일도 걱정이 되어 괴롭습니다.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일도 미리 당겨서 걱정을 하지만 힘든 생각을 피할 방법을 알지 못해 더 괴롭습니다. 걱정하지 않는 방법을 수많은 책에서 제시하는 이유이기도 할 겁니다. 그렇게 많은 방법이 있다는 것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증거일 겁니다. 감기약의 종류가 많은 것과 같은 이치일 수 있겠네요.

'다행'이라는 말을 공부하다가 다행은 주로 불행한 일이 있을 때 쓰는 말이라는 것을 듣고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다행(多幸)이라는 단어는 행운이 많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단어를 불행한 상황에 사용한다니 참 아이러니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쩌면 가장 불행한 순간에도 우리는 행복을 찾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불행한 순간조차도 우리에게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하기 다행이라는 말이 보여주는 세상입니다. 더 큰 불행을 맞지 않은 것만 해도 운이 좋은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난 어떤 일이 다행일까요? 다행이라는 말이 행운이 많다는 의미이니 우리가 갖고 있는 행운의 수를 세어보면 어떨까요? 받아들이기 힘든 분도 있겠지만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엄청난 행운입니다. 수많은 실패를 뚫고 우리는 엄마, 아빠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말조차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괴로운데 태어난 게 무슨 행복인가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태어난 게 행운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나를 세상에 나오게 해 주신 분이 있다는 것, 나를 가엽게 생각해 준 분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부모님이 어떤 분이든지 감사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내가 행운임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인간은 함께 삽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참 다행입니다. 나를 위로해 주고, 내가 위로해 줄 사람이 있어서 말입니다.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잘 안 보인다면 내가 위로할 사람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주변에 나의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내가 정말 힘들다면 더 힘든 사람을 찾아 위로를 건네 보세요. 위로는 상호적이어서 위로를 하면서도 위로를 받습니다. 내가 위로를 받는 것도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겁니다. 사실 우리가 힘든 것은 위로받는 것조차 두렵고 부끄러워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위로하는 사람도 내게 위로를 받는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다행이다'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적이 부른 노래인데, 많은 이들이 무척 좋아한 노래였습니다. 멜로디도 좋았지만 특히 가사가 우리에게 공감을 주었습니다. 좋은 가사가 사람을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보여주는 노래입니다. 가사 끝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다행이다'라는 말은 힘든 마음에 위로를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 큰 행복입니다. 가사 속에는 '그대를 안고서 힘이 들면 눈물 흘릴 수가 있어서, 되지 않는 위로라도 할 수 있어서'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위로를 주고받는 행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에게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로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기는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다행이라는 것을 느끼는 것은 내 옆에 서있는 사람 덕분입니다. 나도 그에게 다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있으나 기억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행복을 생각해 봅니다. 참 행복한 사람인데, 우리는 종종 그걸 잊고 삽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 조현웅(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한민족 공동체 실현을 위한 2019 사할린 아리랑제 한국·중국·러시아 등지 예술인들, 사할린에서 '아리랑'노래를 펼치다

(3면의 계속)

장경자 소리꾼은 "님들의 숭고한 정신을 찾아 우리 여기 왔습니다. 뽀뽀이 흠어지고 갈갈이 찢겨진 우리들의 동족 아리랑의 힘으로서 하나 되게 하소서" 기원을 올리며 예천아리랑을 불렀다.

한겨레아리랑연합회와 2년 전에 우연히 인연을 맺은 김 겐나지 소리꾼은 사할린 출신 김상호 씨의 <코레이스키 아리랑>을 처음으로 불렀는데 다음 딸 이리나와 함께 이 노래를 부르

게 되었다고 한다. 이리나의 모친이 사할린 동포 출신이어서 부녀의 듀엣을 이날 많은 친척과 친구들이 응원했다.

보통 관객과 함께 부르는 아리랑 합창은 한러 축제든가 전통공연에서 순서의 마지막을 장식해왔다. 이번에는 공연 내내 아리랑을 불렀기에 러시아에서 많은 사랑을 받은 <백만송이 장미꽃>(작곡가 라이몬트 파울스)를 통일양상블 율은화 밴드의 연주로 넘치는 흥 가운데 화려한 막을 내렸다. 공연이 끝나도 공연장을 떠나지 못하는 관객들은 나눠진 깃발을 흔들며 <사할린>과 <아리랑>을 외쳤다. 한국에서 온 예술인들은 <내년에도 올 겁니다>라는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이번 사할린 아리랑제를 문화재청, 한국문화재단, <디아스포라>문화원, <통일단체총연합>, 전국 아리랑전승자협의회/아리랑학회/나눔성형외과의원 등이 후원했다. 축제를 추진한 기미양 단장은 아리랑학회 연구이사다.

사할린주 한인협회 박순옥 회장은 이번 축제 준비와 진행에 특히 이진선 홈스크 한인회 운영위원, 배영희 아나와 한인회 부회장, <아리랑>무용단 박영자, 강팔용 한인문화센터 전문가, 주한인협회 청년부 오 블라지미르 부회장(공연 사회), 배 잔나 학생(공연 사회)이 많은 수고를 담당해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취재: 글/배순신, 사진/이예식)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직접 참가>부분의 첫 단계 도전 게임은 엑스포센터에서<모스크바 극동의 날> 축제 기간인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다. 행사장에서는 몇 가지 문제들을 더 풀어야 하는데 우수한 사람들 중에는 <모두 키크라>시스템에 따라 극동 지역 중에 한 곳 방문을 목적으로 두 명당 10개 여행일정을 알아 맞춰야 한다. 이 여행일정에 전문 가이드가 동반하는 훨씬 흥미로운 여행지 방문이 포함돼 있다. <모스크바 극동의 날들> 도전 게임 종료 후에도 남은 힘으로 2차 단계가 시작되는데 첫 단계와는 전혀 다른 온라인 퀴즈게임이 여기서 시작된다. <대규모 극동 도전 게임>은 <극동 급행열차>가 마지막으로 콜레보이 노선을 따라 운행하는 4월 30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2차 단계를 무사히 통과한 승객들은 기념이 될 상품을 받게 되며 첫 단계 우승자들은 이들의 계정이 차단되므로 2차 단계에 참가할 수 없다.

Среди пассажиров московского метро разыгрывают путешествие на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Пройти «Большой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квест» и получить ценные призы и подарки теперь может каждый пассажир московского метро прямо по дороге на работу! Для этого нужно всего лишь сесть на специальный брендированный поезд —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экспресс», — который ходит по Кольцевой линии с 8 ноября.

Особенностью этого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экспресса» стала непрерывная призовая викторина. А одна из дверей каждого вагона служит входом прямо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регион! В каждом вагоне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экспресса» есть QR-код, сканируя который, пассажир попадает на сайт квес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вшись на сайте в период с 8 ноября по 14 декабря 2019 года, пассажир участвует в первом этапе конкурса. Он состоит из «заочной» и «очной» частей.

«Заочную» часть первого этапа квеста можно выполнить тут же, не выходя из вагона, — баллы начисляются за прохождение онлайн-игры-викторины, репост в соцсетях и приглашение друзей. Всех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х участников ждут на «очной» части первого этапа квеста, которую пропускать никак нельзя, — иначе не получить главный приз!

«Очная» часть первого этапа квеста пройдет с 12 по 14 декабря в экспо-центре — во время проведения фестиваля «Дн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Москве». На площадке нужно будет разгадать еще несколько ребусов. Среди победителей будут разыграны 10 путевок на двоих на посещение одного из регионо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по системе «все включено»! Путевки включают посещение наиболее интересных туристических мест в сопровождени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гидов.

После завершения «Дней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Москве» квест не утратит силы. Начнется его второй этап, никак не связанный с первым, но с той же онлайн-викториной. Так что «Большой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квест»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вплоть до 30 апреля — дня, когда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экспресс» последний раз проедет по Кольцевой линии. Среди пассажиров, успешно прошедших второй этап квеста, будут разыгрываться памятные призы. Победители первого этапа не смогут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о втором — их аккаунты будут заблокированы.

сахалин 의사들 월평균 임금 상위 5위 안에 들다

러시아 의사들의 월평균 임금이 가장 높은 곳은 추코트카 자치구로 월 18만 7천9백 루블리를 받는 것으로 기록되었다. 이는 러시아 통계청이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의 통계 총결에 따른 것이다.

상위 5위 안에 든 지역별 의사들의 월평균 임금은 야말 네네츠크 자치구가 182,700 루블리,

네네츠키 자치구가 166,700 루블리, сахалин은 158,000 루블리, 모스크바는 142,400 루블리이다.

임금이 가장 낮은 곳은 북 카프카스로 기록되었고 인구셰티야 공화국은 43,400루블리, 북 오세티야 공화국은 44,700 루블리, 카바르디노 발카르스카야 공화국과 카라차예워 체르케시야 공화국은 45,000 루블리, 다케스탄은 45,300 루블리이다.

전국 의사들의 월평균 임금은 79,000루블리로 러시아 통계청 지표에 따르면 2019년 1월-9월까지 의사들의 임금 수준은 7% 인상되었다.

Сахалин вошел в топ-5 регионов по зарплатам врачей

Самые высокие зарплаты врачей в России зафиксированы на Чукотке, где в среднем доктора получают 187,9 тысячи рублей. Это следует из отчета Росстата по итогам января-сентября 2019 года.

В пятерку лидеров по размеру зарплат также входят Ямало-Ненецкий автономный округ (182,7 тысячи рублей), Ненецкий автономный округ (166,7 тысячи рублей), **Сахалин (158 тысяч рублей)** и Москва (142,4 тысячи рубле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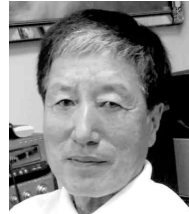
Самые маленькие зарплаты зафиксированы на Северном Кавказе. Так, в Ингушетии средняя зарплата врачей составляет 43,4 тысячи рублей, в Северной Осетии — 44,7 тысячи рублей, в Кабардино-Балкарии и Карачаево-Черкесии — 45 тысяч рублей, в Дагестане — 45,3 тысячи рублей.

Средняя зарплата врачей по стране составляет 79 тысяч рублей в месяц. По данным Росстата, за первые девять месяцев 2019 года этот показатель увеличился на семь процентов.

(сахалин주 및 러시아 언론기관 자료에서)

코르사코브 한인회 이태출 (이태준) 회장님께 드리는 축하문

Папа, родной наш, любимый,
Дедушка славный, незаменимый,
С 70-летием поздравляем
И всяческих благ желаем!
Духа крепкого, здоровья!
Светлой радости, тепла!
Доброты и море счастья!
Никогда не знать ненастья,
Бесконечно долгих лет,
Без печали и без бед!



Твои дети, зятья и внуки

이태출 회장님의 고회를(70세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랫동안 코르사코브 한인 동포를 위해 활약하시는데 앞으로도 더 밝은 모습으로 저희들과 활동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와 손자녀들의 사랑을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코르사코브 한인회 회원들로부터

새고려신문 살리자

러시아에 사시는 분들은 이 계좌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2810750340100530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한국에서는: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190-01-021311 예금주 BYA VIKTORIYA

본사편집부

Заказывай еду онлайн



eda.sakh.com



ООО "Сах.ком", ОГРН 1046500642264,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реклама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ая장(주필) 배 워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
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12-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Н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